중3 역사② V-4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집안의 질서는 엄격해지는데, 서민의 목소리는 왜 커졌을까?

질문 20개 · 확인 문제 24개 · 정답과 해설 포함

부계·큰아들 중심 | 향촌 질서의 변화 | 두레 | 한글 소설 | 판소리·탈춤 | 풍속화·민화



김홍도, 「씨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수록한 옛 그림 이미지에는 각 이미지에 표시한 출처와 이용 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 문구는 해당 이미지의 공개 이용 조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단원에서 이어 볼 흐름

앞 단원에서는 조선의 현실을 고치려는 학문과 새로운 예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안과 마을의 질서, 사람들이 읽고 보고 즐긴 문화로 시선을 옮깁니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와 큰아들을 중시하는 가족 질서가 강해지는 한편, 서민들이 문학과 공연을 즐기고 사회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커졌습니다. 같은 시대의 변화라도 분야에 따라 방향이 달랐습니다.

표 **이번 단원의 네 가지 질문**

살펴볼 곳	중심 질문	연결할 말
집안	누구를 중심으로 재산과 제사를 이었을까?	부계 · 큰아들 · 양자 · 족보
마을	누가 영향력을 지키고, 어떻게 함께 일했을까?	문중 · 동족 마을 · 두레
읽고 듣는 문화	누가 이야기를 즐기고 무엇을 비판했을까?	한글 소설 · 사설시조 · 판소리 · 탈춤
그림과 놀이	누구의 생활과 어떤 바람을 표현했을까?	풍속화 · 민화 · 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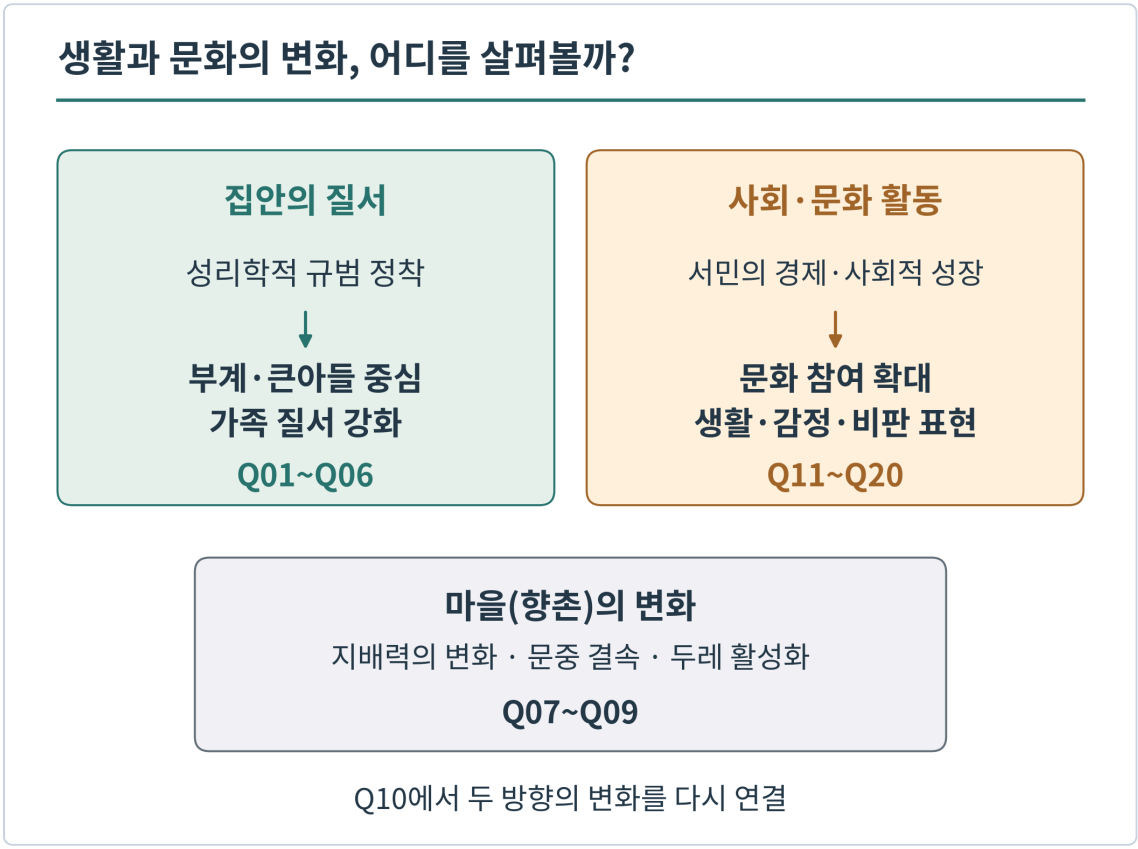


그림 1 **한 시대 안에서 함께 나타난 서로 다른 변화**

가족 질서의 강화와 서민의 사회·문화 활동 확대는 같은 시대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쪽 변화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없앤 것은 아닙니다.

1 집안의 질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Q01 큰아들이 제사와 재산을 맡는 풍습은 조선 초기부터 똑같았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조선 전기·중기에는 남녀 자녀가 재산과 제사 책임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고, 후기에는 부계와 큰아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낯선 말	
상속	부모 등이 남긴 재산이나 지위를 이어받는 것.
부계	아버지 쪽 혈통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관계.
제사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의례.
성리학적 생활 규범	성리학의 가족·사회 질서를 일상에서 지키도록 한 기준.

표 가족 풍습의 변화와 찾아볼 질문

기준	조선 전기·중기에 많았던 모습	조선 후기에 강해진 경향	자세히 볼 곳
혼인 뒤 거주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상당 기간 생활	여자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남자 집 중심으로 생활	Q02
재산 상속	아들과 딸이 비교적 고르게 나누어 받음	큰아들 우대	Q03
제사	남녀 형제가 돌아가며 맡거나 책임을 나눔	큰아들이 주로 맡아야 한다는 인식 확산	Q03
가계 계승	아들이 없어 딸이 제사를 맡는 사례도 있음	부계 친족 가운데 양자를 들여 대를 이으려 함	Q04
족보 기록	아들·딸을 출생 순서로 기록하고 외손도 함께 수록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외손 기록을 줄임	Q05
여성의 생활	후기에 비해 생활의 제약이 덜함	외출·재혼 제약, 정절 강조	Q06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생활 속에 정착 → **부계·큰아들 중심 가족 질서 강화**

설명 법이나 학문에서 강조하는 기준과 실제 생활의 관습은 언제나 동시에 바뀌지 않습니다. 성리학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뒤에도 이전의 혼인·상속 풍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적 규범이 생활 속에 더 깊이 자리 잡으면서 가족 풍습도 달라졌습니다.

표는 변화의 큰 방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조선 시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큰아들만 재산을 받았다	**시기에 따라 상속과 제사 풍습이 달라졌다**
전기에 아들과 딸이 재산을 나누었으니 모든 사회적 권리도 같았다	**재산 상속의 모습과 사회 전체의 권리는 구별한다**

시험 포인트 **남녀가 나눔 → 전기·중기 / 부계·큰아들 중심 → 후기**를 비교합니다. 후기의 변화가 나타난 배경은 **성리학적 생활 규범의 정착**입니다.

Q02 조선 후기에는 혼례도 모두 남자 집에서 올렸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후기에도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달라진 것은 혼례 뒤의 거주로, 여자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낯선 말	
혼례	혼인할 때 치르는 의식.
처가	아내의 친정집, 곧 아내의 부모가 사는 집.
친영제	남자가 신부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와 혼례를 치르고 사는 혼인 방식.
반친영제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른 뒤 일정 기간 머물다가 남자 집으로 가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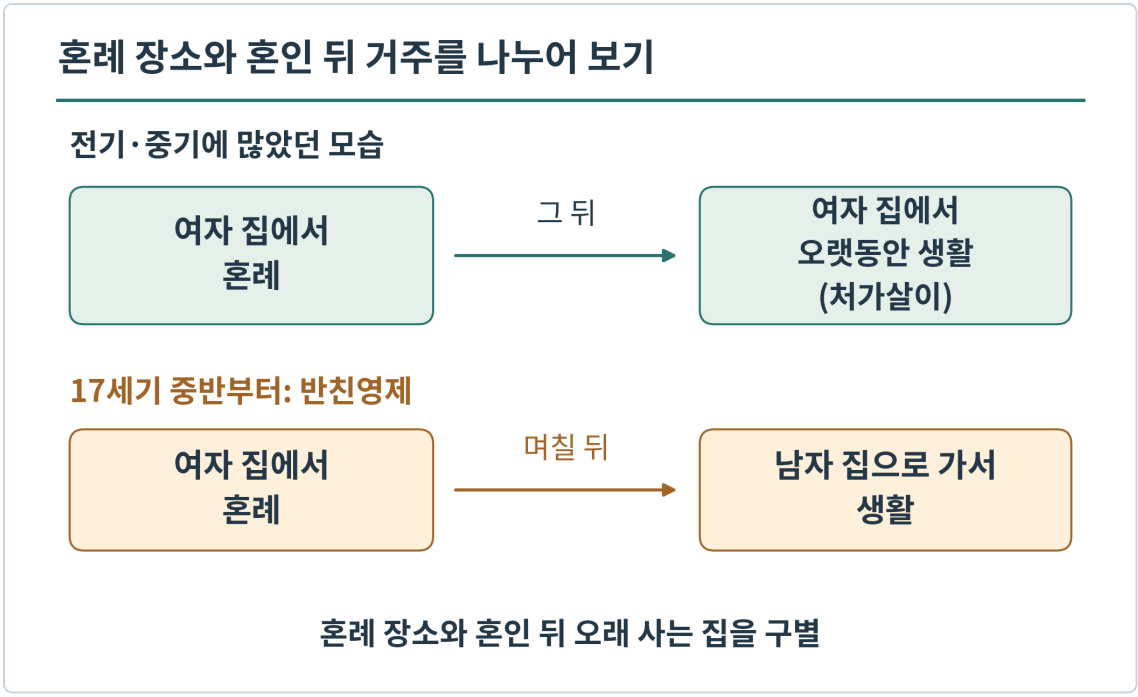


그림 2 **혼례 장소와 혼인 뒤 거주는 다른 질문**

혼례 장소가 같아도 혼인 뒤 거주 방식은 달랐습니다. 전기·중기에는 여자 집에서 오래 생활했고, 후기에는 여자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표 **두 가지를 나누어 읽기**

자료가 말하는 것	판단할 내용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름	혼례를 치른 장소
혼인 후 오랫동안 여자 집에서 생활	혼인 뒤 거주 방식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며칠 뒤 남자 집으로 감	혼례 장소는 여자 집, 이후 생활의 중심은 남자 집

설명 조선에서는 친영제를 보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생활 풍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반친영제가 이루어지면서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관습과 남자 집 중심의 생활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는 '어디서 혼례를 했나?'와 '그 뒤 어디에서 살았나?'에 각각 답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렀으니 무조건 조선 전기의 모습이다	**후기의 반친영제에서도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시험 포인트 **장소 하나보다 '그 뒤 어디로 갔는가'까지** 읽습니다. **친영제—남자 집에서 혼례·생활 / 반친영제—여자 집에서 혼례, 며칠 뒤 남자 집으로 이동**을 짝지어 기억합니다.

Q03 제사를 큰아들이 맡는 것과 재산을 더 받는 것은 왜 함께 나오나요?

한 줄 답 **집안의 대와 제사를 큰아들이 잇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가계 계승	집안의 대를 이어 가는 것.
균분 상속	재산을 비교적 고르게 나누어 물려주는 것.
우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대하는 것.

표 **서로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은 두 변화**

질문	후기의 경향	뜻
제사를 누가 주로 맡는가?	큰아들	집안과 조상 의례를 잇는 역할을 중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	큰아들 우대	상속에서 큰아들의 몫을 더 중요하게 여김

설명 제사는 음식 한 번을 준비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집안의 계승자로 인정할 것인가와도 연결되었습니다. 부계 중심의 가계 계승이 중요해지면서 제사와 재산을 큰아들에게 연결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우대는 다른 자녀보다 유리하게 대하는 것이고, **독점**은 혼자 모두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두 말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큰아들 우대는 큰아들만 모든 재산을 받았다는 뜻이다	**큰아들의 지위와 상속상의 몫을 더 중시했다는 뜻이다**

시험 포인트 **큰아들 제사 주관 + 큰아들 우대 상속 → 부계 중심 가족 질서 강화**로 연결합니다.

Q04 아들이 없으면 왜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나요?

한 줄 답 **아버지 쪽 혈통을 중심으로 집안의 대와 제사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양자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자식으로 맞아들인 아들. 조선 후기에는 주로 같은 부계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음.
친족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의 사람들.
동성 친족	같은 성을 쓰는 친족. 여기서는 부계로 이어진 같은 집안의 친족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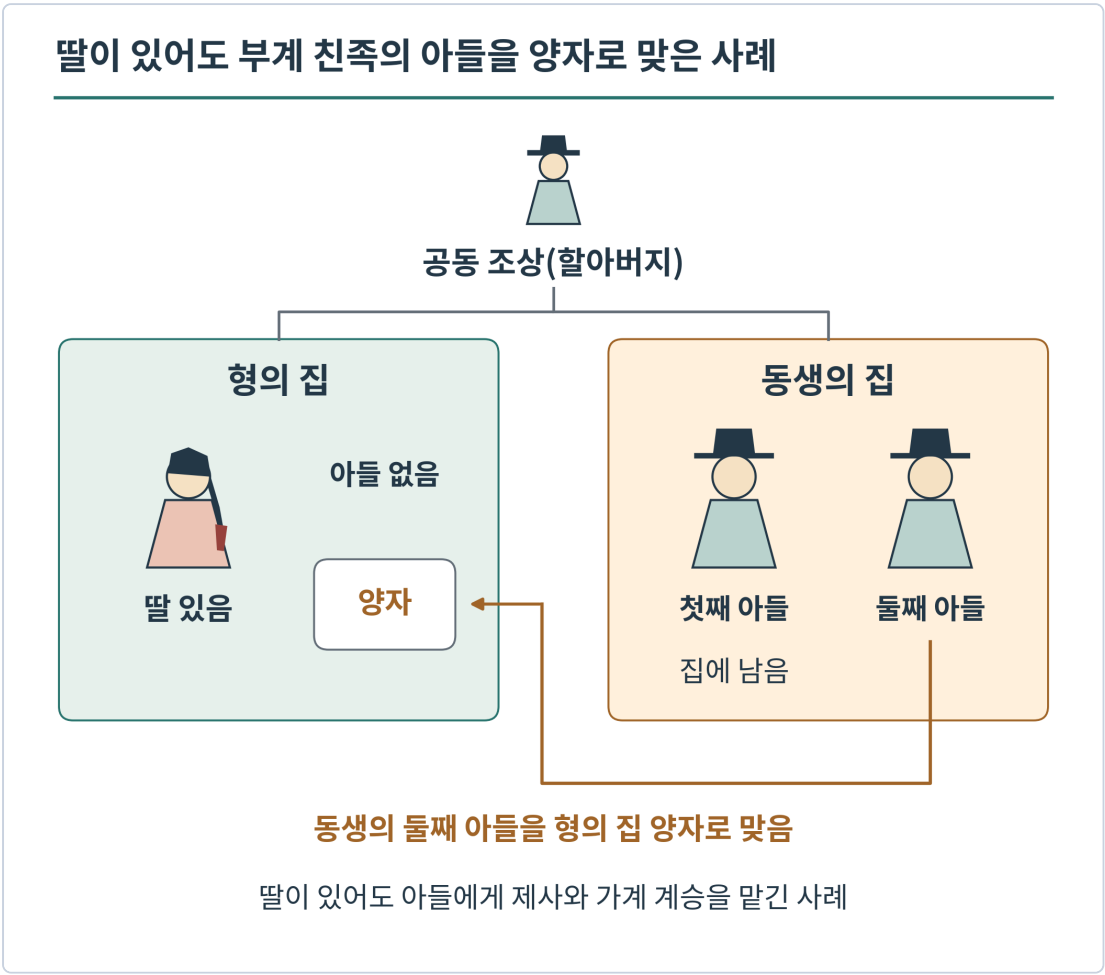


그림 3 **부계로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뜻**

집안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같은 부계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대를 잇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설명 딸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 부계의 대를 잇는 일을 중시하여 같은 부계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림에서는 동생의 둘째 아들을 형의 집 양자로 맞습니다. 형의 집은 그 아들에게 제사와 가계 계승을 맡기고, 동생의 집에는 첫째 아들이 남습니다.

성씨뿐 아니라 친족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의 '대를 잇는다', '제사를 맡는다'는 말이 양자를 들인 이유를 보여 줍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양자를 들였다는 것은 딸도 없었다는 뜻이다	**딸이 있어도 부계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였다**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부계 친족이다	**같은 성씨와 실제 친족 관계를 구별한다**

시험 포인트 **아들 없음·동성 친족·양자·대 잇기 → 부계 중심의 가계 계승**입니다.

Q05 족보에서 아들을 먼저 쓰고 외손을 줄인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한 줄 답 **가족을 기록하는 방식에서도 아버지 쪽 혈통을 더 중시하는 변화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족보	한 집안의 혈통과 친족 관계를 정리한 책.
외손	딸을 통해 이어진 자손.
문중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결속한 부계 친족 집단.

표 **족보의 기록과 그 의미**

보이는 변화	읽어 낼 의미
아들을 먼저 기록	부계 중심의 계승을 중시
외손의 기록을 줄임	딸 쪽 후손보다 부계 후손을 더 중시
족보를 활발하게 간행	집안의 계통과 문중의 위상을 강조

설명 족보는 사람을 단순히 세어 놓은 명단이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쓰고 어느 관계를 자세히 적는가에 집안이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기재 방식의 변화도 가족 질서를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앞 단원에서 본 신분 상승을 위한 족보 매입·위조와도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족보의 진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순서와 범위에 나타난 부계 중심성**을 읽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외손의 기록을 줄였으니 외손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졌다	**기록의 범위를 줄인 것과 실제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다르다**

시험 포인트 **아들 먼저·외손 축소 → 부계 중심**입니다. '기록을 줄였다'를 '사람이나 관계가 사라졌다'로 바꾸지 않습니다.

Q06 여성의 생활에 제약이 커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한 줄 답 **남녀의 역할과 공간을 구분하고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면서, 특히 양반 여성의 외출과 재혼 등이 더 제약받았다는 뜻입니다.**

낯선 말	
남녀유별	남녀의 역할과 행동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유교적 규범.
사랑채	양반 가옥에서 남성의 거처와 손님 접대 등에 사용한 공간.
안채	양반 가옥에서 여성의 생활이 중심이 된 안쪽 공간.
정절	당시 여성에게 요구한,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태도.
열녀	당시 기준에서 정절을 지킨 여성으로 인정되어 칭송받은 사람.
재혼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혼인 관계가 끝난 뒤 다시 혼인하는 것.



그림 4 **집의 공간에도 반영된 남녀 구분**

대문 가까운 사랑채와 중문 안쪽의 안채를 구분해 봅니다. 특정 가옥을 복원한 그림이 아니라 공간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 그린 개념도입니다.

표 **여성의 생활에서 나타난 제약**

영역	당시 나타난 모습
외출	양반 여성의 바깥출입을 제한하고, 외출 때 장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함
주거 공간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하여 남녀의 생활 공간을 나눔
혼인과 평가	과부의 재혼을 제한하고 열녀를 표창하여 정절을 강조



그림 5 **외출할 때 옷을 머리에 둘러 가린 모습**

외출할 때 장옷을 머리에 써서 얼굴을 가린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 그린 상상도입니다.

설명 성리학적 규범이 퍼지면서 남녀의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특히 양반 여성의 외출과 재혼을 제약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는 여성도 있었으므로 계층과 생업에 따라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시험에서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배경을 연결합니다. '사랑채·안채 구분'이나 '열녀 표창'은 남녀의 역할 구분과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 유교 윤리의 확산과 연결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여성은 누구나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계층과 생업에 따라 생활은 달랐으며, 특히 양반 여성에게 강한 제약이 요구되었다**

시험 포인트 **외출 제약·사랑채/안채·재혼 제한·열녀 표창 → 남녀유별과 정절 강조**로 묶습니다.

2 마을의 힘과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Q07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약해졌다면 수령과 향리도 약해졌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기존 양반과 새로 성장한 부농이 향촌의 주도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낯선 말	
향촌	지방의 마을과 그 주변 사회.
부농	재산을 늘려 경제력을 갖춘 농민.
수령	중앙에서 지방에 보내 고을을 다스리게 한 관리.
향리	고을에서 행정 실무를 맡던 사람.
향촌 지배력	지방의 마을과 주민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통제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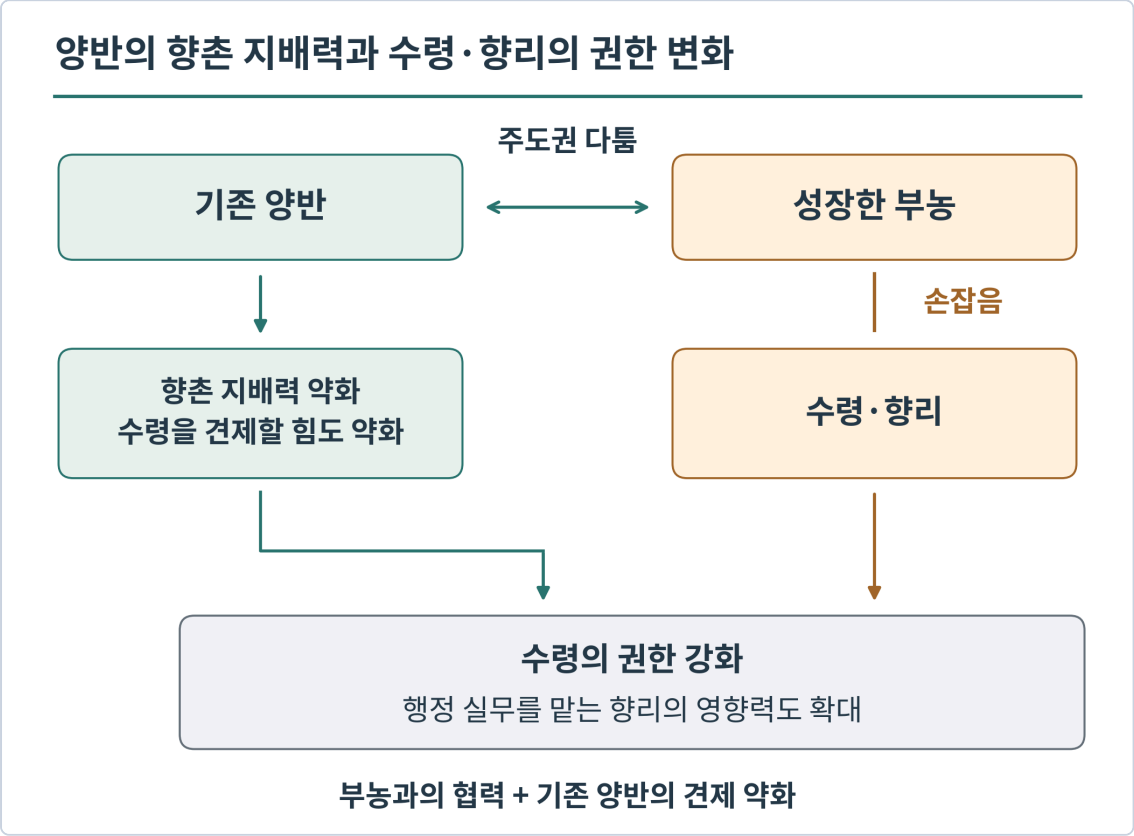


그림 6 **모두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다툼의 당사자인 기존 양반·부농과, 그 과정에서 권한이 강해진 수령·향리를 구별합니다.

부농 성장 → 기존 양반과 주도권 다툼 → 양반의 향촌 지배력 약화 → 수령·향리 권한 강화

설명 양반은 관직을 가진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직 없이 지방에 살면서 가문의 권위와 인맥으로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한 양반도 있었습니다. 반면 수령은 고을의 행정을 맡은 관리이고, 향리는 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새로 경제력을 얻은 부농은 수령·향리와 손잡고 마을 운영에 참여하며 기존 양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양반이 수령을 견제하던 힘이 약해지자 수령의 권한이 강해졌고, 수령을 도와 행정 실무를 맡던 향리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양반의 힘이 약해졌으므로 모든 지방 관리의 힘도 약해졌다	**기존 양반의 향촌 지배력은 약해지고 수령·향리의 권한은 강해졌다**

시험 포인트 **기존 양반 ↔ 부농의 다툼 / 수령·향리 권한 강화**를 분리해서 기억합니다.

Q08 양반은 왜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고 족보를 만들었나요?

한 줄 답 **친족의 결속과 가문의 위상을 높여 약해지는 향촌의 영향력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동족 마을	같은 조상의 후손인 친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
사우	조상이나 존경받는 인물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던 곳.
서원	유학자를 기리고 유학을 가르치던 사립 교육 기관.
결속	여러 사람이 공동의 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단단히 뭉치는 것.

표 양반이 가문의 힘을 유지한 방법

한 일	연결되는 목적
동족 마을 형성	친족들이 가까이 살며 서로 힘을 보탬
문중의 결속 강화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집안의 관계를 다짐
사우·서원 건립	조상과 인물을 기리고 가문의 위상을 높임
족보 간행	집안의 계통을 정리하고 드러냄

향촌 지배력 약화 → **문중 결속(동족 마을·족보·사우·서원)** → **가문의 위상 유지**

설명 기존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친족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흩어진 친족들이 가까이 모여 살고 조상을 함께 기리면 서로 도울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족보와 사우·서원은 가문의 계통과 위상을 드러내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동족 마을과 문중을 이해할 때는 **공동 조상과 친족 관계**가 핵심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동족 마을이 생겼으니 양반의 향촌 지배력은 계속 강해졌다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의 결속으로 세력을 지키려 했다**
성씨가 같은 사람은 모두 같은 문중이다	**공동 조상과 부계 친족 관계가 문중 결속의 바탕이다**

시험 포인트 **동족 마을·문중·사우/서원·족보 → 양반 가문의 결속과 위상 유지**입니다.

Q09 모내기법이 퍼지자 왜 두레가 활발해졌나요?

한 줄 답 **모내기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마을 농민들이 두레를 만들어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두레	마을 농민들이 농사일을 함께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 조직.
모내기	모판에서 기른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일.
노동력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힘과 일손.
유대감	함께 이어져 있다고 느끼는 마음.
자율성	자기들의 일을 스스로 의논하고 운영하는 성격.



그림 7 **한 논에 모여 함께 모를 심는 사람들**

여러 농민이 한 논에서 모를 심고, 논두렁에는 농기와 풍물 악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 노동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 그린 상상도입니다.

모내기법 확산 → **한꺼번에 많은 일손 필요** → **두레 활성화** → **유대감·자율성 강화**

설명 모내기는 한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처리하면서 두레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공동 노동은 농민들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두레의 공동 노동은 토지 공동 소유이며 정약용의 개혁안이 시행된 것이다	**두레는 함께 일하는 조직이고, 토지 공동 소유·경작 개혁안과는 다르다**
문중과 두레는 모두 같은 성씨 사람들만의 조직이다	**문중은 친족 관계, 두레는 농사 협력이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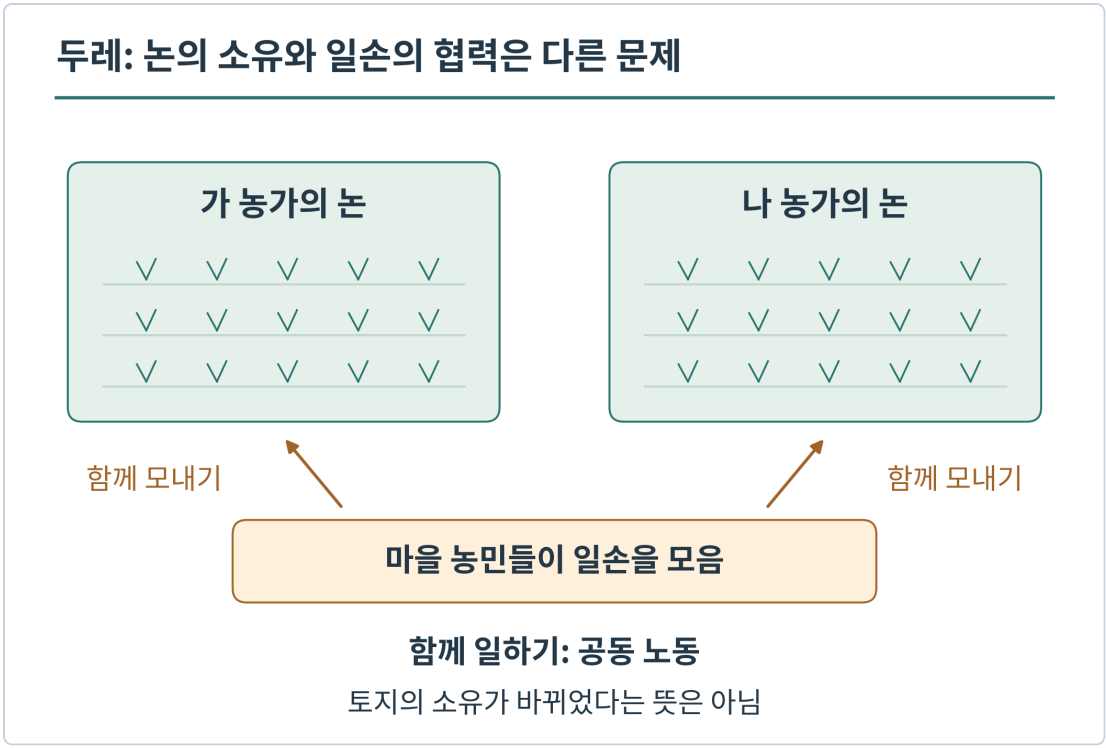


그림 8 **공동 노동과 토지 소유를 구별하기**

모내기 장면의 뜻을 정리한 보조 도식입니다. 서로의 논에서 일손을 모으는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내기·많은 일손·공동 노동 → 두레 → 유대감·자율성**입니다.

Q10 신분 질서는 흔들리는데 가족 질서는 더 엄격해졌다는 말이 모순 아닌가요?

한 줄 답 **모순이 아닙니다. 신분·경제 활동에서 생긴 변화와 가족 생활의 규범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낯선 말	
신분 질서의 동요	신분에 따른 기존의 구분과 지배 관계가 흔들리는 것.
서민 의식	서민들이 자신의 생활·감정·사회 문제에 관해 가진 생각과 자각.

다시 연결하기 단원 첫머리의 그림을 다시 봅니다. 가족 규범과 사회·문화 활동을 나누어 읽습니다.

설명 경제력을 키운 농민과 상인의 성장은 기존 양반 중심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가문의 대와 위상을 강조하며 부계 중심의 질서를 굳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어떤 생활을 말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문화 참여가 넓어졌으니 가족의 권리도 곧바로 같아졌다	**가족 규범과 사회·문화 활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

시험 포인트 **가족: 부계·큰아들 중심 강화 / 사회·문화: 서민의 성장과 참여 확대**를 동시에 기억합니다.

3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며 사회를 바라보다

Q11 서당이 늘어난 것이 서민 문화와 무슨 관계인가요?

한 줄 답 **교육과 한글 사용이 확대되면서 글을 읽고 쓰는 서민이 늘었고, 문학을 즐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반도 넓어졌습니다.**

낯선 말	
서민 문화	서민들의 생활·감정·바람이 드러나고 서민들의 참여가 확대된 문화.
서당	마을에서 글과 기초적인 유교 지식 등을 가르치던 교육 공간.
문예 활동	문학과 예술을 만들거나 감상하는 활동.

표 서민 문화가 발달한 배경

변화	문화 활동과 연결되는 점
서민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성장	문화에 참여하려는 사람과 여력이 늘어남
서당 교육의 보급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를 기회 확대
한글 사용의 확대	한글로 된 이야기를 접할 기회 확대
서민 의식의 성장	자신의 감정과 생활, 사회에 대한 생각을 표현



그림 9 **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

김홍도, 「서당」. 훈장과 학생들의 자세·표정을 살펴봅니다. 글을 배우는 일도 풍속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에서 찾아보기

- ☐ 훈장 앞에서 눈물을 닦는 학생과 옆에서 웃는 학생을 찾아봅니다.
- ☐ 훈장과 학생들이 둥글게 모인 자리에서 책을 찾아봅니다.
- ☐ 건물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과 행동에 집중한 화면을 봅니다.

서민의 경제력 성장 + 서당 보급·한글 사용 확대 → **서민 의식 성장** → **서민 문화 발달**

설명 한글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고, 이 단원은 조선 후기에 한글 사용과 문화 참여가 더 넓어지는 모습을 다룹니다. 교육의 확대와 경제·사회적 변화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울 기회가 넓어지자 서민들도 문학을 접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쉬워졌습니다. 널리 쓰인 한글은 이야기와 생활 감정을 글로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후기의 서민 문화는 이때 한글이 처음 만들어져서 발달했다	**전기에 창제된 한글의 사용이 후기에 확대되었다**
서당이 늘었으므로 모든 서민이 글을 읽었다	**글을 배울 기회와 문화를 즐길 기반이 넓어졌다**

시험 포인트 **경제·사회적 성장 + 서당 보급·한글 사용 확대 → 서민 의식 성장·문화 참여 확대**입니다.

Q12 한글 소설은 책을 사서 혼자 읽는 사람들만 즐겼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돈을 내고 빌려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도 즐겼습니다.**

낯선 말	
한글 소설	한글로 쓴 소설.
세책방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던 곳.
전기수	사람들 앞에서 소설을 읽어 주던 사람.
독자	글이나 책을 읽는 사람.
청중	말·노래·이야기 등을 듣는 사람들.



그림 10 **책을 빌려 읽고 이야기를 듣는 장면**

왼쪽은 세책방에서 돈을 내고 책을 빌리는 모습, 오른쪽은 전기수가 읽어 주는 이야기를 듣는 모습입니다. 두 활동을 구별하기 위해 새로 그린 상상도입니다.

설명 책을 빌려주는 세책방이 등장했다는 것은 책이 널리 읽히면서 책을 빌려주는 일 자체가 장사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설을 읽어 주는 **전기수**도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문화가 퍼지는 길에는 글을 읽는 활동과 이야기를 듣는 활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글 소설’은 작품을 접하는 문자와 관련된 구분입니다. 작품을 쓴 사람의 신분, 작품의 문자, 작품을 즐긴 사람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한글 소설을 즐기려면 반드시 직접 책을 살 수 있어야 했다	**빌려 읽거나 낭독·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있었다**
한글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작가의 신분까지 알 수 있다	**사용한 문자와 작가의 신분은 다른 기준이다**

시험 포인트 **돈을 내고 책을 빌림 → 세책방 / 전기수가 읽어 주는 이야기를 들음 → 청중의 확대**로 연결합니다.

Q13 『홍길동전』과 『춘향전』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왜 사회 비판인가요?

한 줄 답 **인물의 갈등을 통해 서얼 차별, 신분의 벽, 탐관오리의 횡포(힘 있는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행동) 같은 사회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서얼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자손. 관직 진출 등에서 차별을 받았음.
탐관오리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는 못된 관리.
수청	여기서는 관리가 여인에게 곁에서 자신을 시중들라고 강요하는 것.
암행어사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 관리의 잘못을 몰래 살피던 관리.
횡포	힘을 믿고 제멋대로 남을 억누르거나 괴롭히는 행동.
사회 모순	사회가 내세우는 기준과 실제 모습이 어긋나거나 부당함이 생기는 문제.
이상 사회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꿈꾸는 사회.

표 인물의 갈등에서 사회 문제 찾기

작품	연결할 내용	사회를 바라보는 눈
허균의 『홍길동전』	서얼 차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이상 사회의 추구	태어난 신분 때문에 능력과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 비판
『춘향전』	신분을 넘어선 사랑, 힘 있는 관리의 강요에 대한 저항	신분의 벽과 특권층의 횡포 비판

작품 읽기 · 누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했을까?

작품	누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했나
『홍길동전』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홍길동	서얼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벼슬길에서도 차별을 받음	집을 떠나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율도국을 다스리며 이상 사회를 이루려 함
『춘향전』	기생의 딸 춘향과 양반의 아들 이몽룡	새로 온 사또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함	춘향이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 변학도를 벌함

작품의 대표적인 줄거리를 학습용으로 새로 요약했습니다. 원문 인용이 아닙니다.

설명 소설 속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처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구의 이야기라도 당시 사람들이 느끼던 차별과 부당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편에서 '무엇 때문에 억울한가?'를 살피면 사회 비판의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재미와 비판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과 갈등이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긴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홍길동전—서얼 차별·이상 사회 / 춘향전—신분의 벽·관리의 횡포**입니다. 두 작품을 무조건 같은 차별의 사례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Q14 사설시조는 형식이 아예 없는 글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시조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말을 길게 늘이며, 평시조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생활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낯선 말	
사설시조	평시조보다 길이가 길고 자유로운 표현이 두드러지는 시조.
평시조	비교적 짧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기본적인 시조.
해학	사람의 모습이나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주는 것.

표 ‘자유롭다’는 말의 뜻

비교할 점	사설시조에서 주목할 내용
형식	평시조보다 말을 길게 늘이고 표현을 자유롭게 함
소재와 감정	생활 속 고민·사랑·바람 등 솔직한 감정을 드러냄
표현	익살스럽게 웃음을 주거나 현실을 풍자하기도 함 (아래 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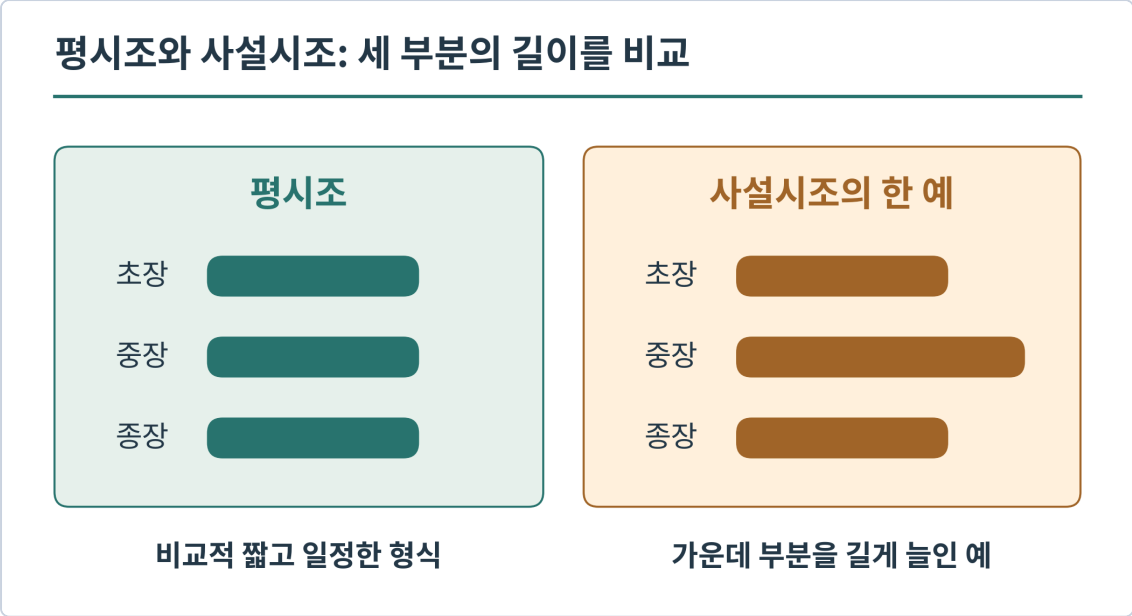


그림 11 시조의 세 부분과 길이 비교

초장·중장·종장은 시조의 처음·가운데·끝 부분입니다. 중장을 길게 늘인 사설시조의 예를 막대로 나타냈습니다.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 현대어 풀이

> 두꺼비가 파리 한 마리를 문 채 두엄더미 위로 올라앉았다.
>
> 맞은편 산에 매가 떠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급히 뛰어 달아나다가, 두엄더미 아래로 굴러 넘어졌다.
>
> “내가 재빨랐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네!”

옛 시조를 직접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두엄은 거름으로 쓰려고 쌓아 둔 풀·짚·가축의 배설물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두꺼비의 행동을 길게 늘어놓은 모습을 봅니다. 약한 파리는 괴롭히면서 힘센 매 앞에서는 달아나고도 큰소리치는 두꺼비를 통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비꼬았습니다.

설명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기존의 짧은 형식을 더 자유롭게 활용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세한 운율 분석보다 **서민의 솔직한 감정과 생활이 문학에 드러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랑이나 일상의 고민을 표현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작품의 소재와 말투를 보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나타나는지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길고 자유로운 시조·솔직한 생활 감정 → 사설시조**입니다. 노래와 말로 긴 이야기를 공연하는 판소리와 구별합니다.

Q15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노래하는 공연인가요?

한 줄 답 **판소리의 기본 형식은 소리꾼 한 명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이야기를 풀어 가는 것입니다.**

낯선 말	
판소리	소리꾼이 북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말·몸짓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 예술.
소리꾼	판소리에서 이야기를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
고수	북을 치며 소리꾼의 공연을 받쳐 주는 사람.
장단	음악에서 되풀이되는 리듬의 틀.



그림 12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판소리
부채를 든 소리꾼이 이야기를 풀고 고수가 북 장단을 맞춥니다. 공연 방식을 설명하는 상상도입니다.

표 판소리의 역할과 표현

누가·무엇을	맡은 역할
소리꾼	여러 인물의 말과 사건을 노래·말·몸짓으로 풀어냄
고수와 북	장단을 맞추며 공연을 받쳐 줌
청중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공연을 즐김

설명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라고 무대 위의 소리꾼도 그만큼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꾼 한 명이 목소리와 말, 몸짓을 바꾸며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연을 이끈다'는 사실과 '고수가 북을 치며 함께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판소리는 서민 문화의 발달과 연결되며 여러 계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춘향전』처럼 책으로 읽힌 이야기와 판소리로 불린 이야기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책으로 읽는 형식과 공연하는 형식**은 구별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서민 문화로 배우므로 판소리는 서민만 즐겼다	**판소리는 여러 계층의 사랑을 받았다**

시험 포인트 **소리꾼 + 고수의 북 장단 + 노래와 말 → 판소리**입니다.

Q16 탈춤은 웃기려고 하는 공연인데 양반 사회를 비판했다고요?

한 줄 답 **탈을 쓴 인물들의 우스운 말과 행동을 통해 양반의 허세와 위선을 드러내는 풍자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탈춤	탈을 쓴 연기자들이 춤과 대사 등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공연 예술.
풍자	잘못이나 모순을 빗대거나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하는 표현.
위선	겉으로 내세우는 도덕적인 태도와 실제 행동이 다른 것.
말뚝이	탈춤에서 양반의 잘못과 허세를 드러내는 하인 역할의 인물.
장시	정해진 날짜에 열리던 시장.
포구	배가 드나들며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물가의 마을이나 장소.



그림 13 **탈을 쓴 인물들의 익살스러운 공연**

탈을 쓴 연기자들의 말과 몸짓을 관객들이 함께 즐깁니다. 특정 탈춤의 인물·춤사위를 복원한 그림이 아니라 공연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상상도입니다.

장면 읽기 · 웃음이 향하는 대상

> 양반: "나는 돈 욕심 없는 점잖은 선비다."
>
> 말뚝이: "그러면 아까 제 품삯을 빼앗아 넣으신 그 주머니부터 돌려주시지요."
>
> — 양반의 허세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 만든 대사. 전승 탈춤의 원문이 아님.

설명 위 장면에서는 돈 욕심이 없다던 양반이 하인의 품삯을 빼앗은 행동이 드러나 웃음이 생깁니다. 점잖은 말과 탐욕스러운 행동의 차이를 말뚝이가 짚어 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민들은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와 탈춤은 장시나 포구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의 어려움이나 생각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 **공연을 구별하는 단서**

기준	판소리	탈춤
핵심 모습	소리꾼과 고수	탈을 쓴 연기자들의 춤·대사
알아볼 단서	북 장단, 노래와 말로 이야기	탈, 인물 사이의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
함께 연결할 점	여러 사람이 공연을 즐김, 서민 의식의 성장과 연결	여러 사람이 공연을 즐김, 양반의 위선 등을 풍자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양반을 비판하는 탈춤이 유행했으니 신분제가 이미 폐지되었다	**공연 속 비판은 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 준다**

표 서민 문화 네 갈래 한눈에 보기

갈래	어떻게 즐기나	담긴 내용	알아볼 단서
한글 소설	직접 읽거나 전기수의 낭독을 들음	신분 차별·탐관오리 비판, 사랑과 감정	『홍길동전』·『춘향전』, 세책방·전기수
사설시조	길고 자유로운 시조를 읽고 부름	솔직한 생활 감정·해학	길어진 중장
판소리	소리꾼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노래·말로 이야기	여러 인물의 사건과 감정	소리꾼·고수·북
탈춤	탈을 쓴 인물들의 춤·대사를 함께 즐김	양반의 위선에 대한 해학·풍자	탈·말뚝이

시험 포인트 **탈·해학·양반 풍자 → 탈춤**입니다. 공통점과 공연 방식의 차이를 나누어 기억합니다.

4 그림과 놀이에서 일상과 바람을 읽다

Q17 김홍도와 신윤복은 둘 다 풍속화를 그렸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한 줄 답 **둘 다 사람들의 생활을 그렸지만, 대표작에서 김홍도는 서민의 일과 일상, 신윤복은 양반의 풍류와 부녀자의 생활, 남녀 사이의 애정을 주로 보여 줍니다.**

낯선 말	
풍속화	당시 사람들의 일·놀이·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
풍류	멋과 여유를 느끼며 즐기는 생활이나 놀이.
부녀자	여자들을 가리키던 말.
타작	거둔 곡식에서 낟알을 떨어 내는 일.



그림 14 일하는 사람들의 동작과 표정

김홍도, 「벼타작」. 곡식을 털고 옮기는 사람들의 동작과 주변 인물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에서 찾아보기

- ☐ 벼를 내리쳐 털거나 곡식을 옮기는 사람의 서로 다른 동작을 찾습니다.
- ☐ 오른쪽 위에서 비스듬히 누운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비교합니다.
- ☐ 산과 집 같은 배경을 생략하여 인물에 눈이 모이는지 봅니다.



그림 15 명절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신윤복, 「단오풍정」. 그네와 물가 주변의 인물, 옷의 색과 가는 선을 살펴봅니다. 간송미술관 소장. 이미지: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표기본.

그림에서 찾아보기

- ☐ 그네 타는 여인의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찾습니다.
- ☐ 나무·바위·개울이 인물 주변의 배경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 ☐ 인물의 옷을 그린 가는 선과 여러 색을 살펴봅니다.

표 대표작을 구별하는 단서

작가	대표적인 소재와 표현	이 원고에서 본 작품
김홍도	서민의 노동·일상을 생동감 있고 익살스럽게 표현, 인물에 집중하고 배경을 생략한 대표작	「서당」 · 「벼타작」 · 「씨름」
신윤복	양반의 풍류·부녀자들의 생활·남녀 사이의 애정, 섬세한 선과 채색·배경	「단오풍정」

설명 시험에서는 그림 속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봅니다. 곡식을 털거나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인지, 명절의 여가와 부녀자들의 생활을 보여 주는지 살핀 뒤 작가와 연결합니다. 작품 제목을 외울 때도 행동 장면을 함께 떠올리면 서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표는 대표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김홍도는 양반을 전혀 그리지 않았고 신윤복은 여성만 그렸다	**두 화가의 대표적인 소재와 표현 경향을 비교한 것이다**

시험 포인트 **벼타작·서당·씨름—김홍도 / 단오풍정—신윤복**을 장면과 연결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입니다.

Q18 민화는 서민이 그린 그림이고 서민만 걸어 둔 것인가요?

한 줄 답 **둘 다 아닙니다. 서민이 그렸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서민만 쓴 것도 아닙니다. 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이 그렸으며, 복을 바라는 마음 등을 담아 왕실에서 민간까지 생활 공간을 꾸미는 데 썼습니다.**

낯선 말	
민화	생활 공간을 꾸미며 사람들의 바람과 미적 감각을 담은 그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의 작품이 많음.
문자도	효(孝)·충(忠) 같은 글자를 그림처럼 꾸며 그린 민화.



그림 16 **호랑이와 까치에 담은 바람**

까치호랑이(작자 미상, 소장처 명칭 「호랑이와 까치」). 호랑이와 까치, 나무의 배치와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에서 찾아보기

- ☐ 나무 위의 까치와 아래쪽 호랑이를 찾습니다.
- ☐ 호랑이의 커다란 눈과 벌린 입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찾아봅니다.

표 **민화의 소재와 의미**

소재·그림	연결할 내용
까치호랑이	재앙을 막고 좋은 소식을 바라는 뜻과 연결
꽃·새·동물 등	복과 평안 등을 바라는 마음, 생활 공간의 장식
효·충·신 등을 꾸민 문자도	유교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떠올리게 함



그림 17 **효라는 글자를 그림처럼 꾸민 문자도**

「문자도 8폭 병풍」 중 효(孝) 부분. 글자에 잉어와 대나무 등의 그림을 어울리게 넣었습니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덕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설명 민화에는 생활 공간을 꾸미는 기능과 복을 빌고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나 까치 같은 동물에 좋은 소식과 평안을 바라는 뜻을 담았고, 효·충 같은 글자는 늘 곁에 두고 떠올릴 덕목으로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화가는 모두 서민 출신이다	**작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신분은 다른 문제다**
민화는 서민만 생활 공간에 두었다	**민화는 왕실에서 민간까지 널리 이용되었다**

시험 포인트 **작자 미상·동식물/문자·복과 평안·생활 공간 장식 → 민화**입니다.

Q19 풍속화·민화·진경 산수화는 모두 '우리 모습'이라서 같은 그림인가요?

한 줄 답 **함께 우리 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지만, 중심 소재와 기능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낯선 말	
소재	작품에서 표현의 대상으로 삼은 것.
진경 산수화	실제 우리 산천을 바탕으로 그린 산수화.
기능	어떤 대상이 하는 역할이나 쓰임.

표 **그림의 중심을 먼저 찾기**

대표 그림	자료의 핵심 단서	갈래	대표 연결
	실제 산과 강의 모습을 살펴 그림	**진경 산수화**	정선의 「인왕제색도」·「금강전도」
	사람들이 일하고 놀며 살아가는 모습	**풍속화**	김홍도·신윤복
	복을 바라는 상징, 동식물·문자, 생활 공간 장식	**민화**	까치호랑이, 문자도 등

작은 그림 출처: 정선 「인왕제색도」, 김홍도 「씨름」, 작자 미상 까치호랑이(소장처 명칭 「호랑이와 까치」).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 앞 편의 「인왕제색도」 이미지를 재사용했습니다.

설명 그림에서 중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와 설명 자료가 강조하는 특징을 함께 봅니다. 앞 편에서 배운 정선의 진경 산수화와 이번 편의 풍속화·민화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사람이 조금 나오면 풍속화, 나무가 나오면 산수화이다	**무엇을 중심으로 표현했고 어떤 쓰임이 있는지 살핀다**

시험 포인트 **산천 / 사람들의 생활 / 복을 바라는 상징과 쓰임**을 먼저 나눈 뒤 이름을 붙입니다.

Q20 풍속화에서 당시 사람들이 놀던 모습까지 알 수 있나요?

한 줄 답 **씨름·고누·바둑과 같은 놀이를 즐기는 모습과 사람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낯선 말	
여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쉴 수 있는 시간.
고누	땅이나 판에 그린 놀이판에서 말을 움직이며 겨루는 놀이.
택견	발차기와 손동작 등으로 상대와 겨루는 전통 무예.



그림 18 **경기를 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

김홍도, 「씨름」. 맞붙어 겨루는 두 사람과 둘러앉은 구경꾼들의 자세·표정을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에서 찾아보기

- ☐ 갓을 쓴 구경꾼과 쓰지 않은 구경꾼을 각각 찾습니다.
- ☐ 왼쪽에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엿장수를 찾습니다.
- ☐ 배경을 생략하고 씨름꾼 둘레에 관객을 둥글게 배치한 모습을 봅니다.

표 **생활 속에서 즐긴 놀이와 활동**

놀이·활동	알아볼 모습
씨름	서로 맞붙어 힘과 기술을 겨룸, 주변 사람들이 구경
고누	간단한 놀이판에 말을 놓고 움직임
바둑·장기	판에 돌이나 말을 놓고 수를 겨룸
택견	몸의 움직임과 발차기 등으로 겨루는 전통 무예

설명 그림 속 인물이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고 배우고 쉬며 노는 여러 모습이 문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당시의 여가와 공동체 생활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화가는 장면을 선택하고 배치합니다. 그림에서 직접 보이는 행동과 추가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사실을 나눕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씨름」 한 점으로 모든 농민의 일과와 생활 형편을 알 수 있다	**경기와 관람 장면은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일상 전체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시험 포인트 **생활 장면의 관찰 → 풍속화의 특징**입니다. 그림 한 장에서 시대 전체로 지나치게 넓힌 선지를 경계합니다.

제목 질문에 답하기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깊이 자리 잡으며 부계와 큰아들을 중시하는 가족 질서가 강해졌습니다. 한편 경제·사회적 변화와 교육·한글 사용의 확대는 서민의 문화 참여를 넓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와 공연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그림과 놀이에 일상의 감정과 바람을 담았습니다. 두 방향의 변화는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험 직전, 단서를 짝지어 기억하기

표 가족과 향촌의 변화

단서	연결할 핵심	구별할 것
남녀 균분 상속·돌아가며 제사	전기·중기에 많았던 풍습	조선 시대 내내 같은 풍습은 아님
큰아들 제사·우대 상속·친족 양자	부계 중심 가족 질서 강화	우대와 재산 독점은 다름
아들 먼저 기재·외손 축소	족보의 부계 중심성	외손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님
사랑채·안채·열녀 표창	남녀유별·정절 강조	모든 여성의 생활이 같지는 않음
기존 양반과 부농의 다툼	향촌 질서의 변화	수령·향리의 권한은 강화
문중·동족 마을·족보·사우/서원	양반 가문의 결속과 위상 유지	같은 성씨 모두가 같은 문중은 아님
모내기·많은 일손·함께 농사	두레	공동 노동과 공동 소유는 다름

표 **서민 문화와 그림**

단서	연결할 핵심	구별할 것
서당 보급·한글 사용·서민 성장	문화 참여 확대	후기의 한글 창제가 아님
돈을 받고 책을 빌려줌 / 소설을 읽어 줌	세책방 / 전기수	책 대여와 낭독을 구별
서얼 차별·이상 사회	홍길동전	춘향전의 관리 횡포와 구별
신분을 넘어선 사랑·관리의 강요	춘향전	작품의 갈등에서 비판 대상 찾기
길고 자유로운 시조·솔직한 감정	사설시조	아무 형식이 없는 글이라는 뜻은 아님
소리꾼·고수·북·노래와 말	판소리	여러 인물이 나와도 소리꾼이 여럿인 것은 아님
탈·춤과 대사·양반 풍자	탈춤	유행했다고 신분제가 폐지된 것은 아님
벼타작·서당·씨름	김홍도의 풍속화	대표 경향을 '그것만 그렸다'로 한정하지 않음
단오풍정·부녀자 생활·풍류·남녀 사이의 애정	신윤복의 풍속화	김홍도와 작가 연결 구별
동식물·문자·복을 바람·장식	민화(까치호랑이·문자도)	왕실에서도 이용

확인 문제

자료의 일기·대화·기록은 문제를 위해 새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옛 기록을 옮긴 사료가 아닙니다. 01~20은 정답을 하나씩 고릅니다.

확인 01 풍습의 변화 읽기

다음은 서로 다른 시기의 일반적인 가족 풍습을 정리한 카드이다.

카드 (가)	카드 (나)
아들과 딸이 재산을 비교적 고르게 나누고, 제사도 돌아가며 맡는다.	큰아들이 제사를 주로 맡고 상속에서도 우대받는다. 아들이 없으면 부계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들인다.

(가)에서 (나)로 변화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내기의 보급과 농사일의 공동 작업 확대
② 서당의 보급과 한글 소설의 독자 증가
③ 성리학적 생활 규범의 정착과 부계 의식 강화
④ 장시의 성장과 상인들의 활동 범위 확대
⑤ 새로 성장한 부농과 기존 양반의 향촌 주도권 다툼

확인 02 혼례 장소와 거주지 구별하기

>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렀다. 신랑과 신부는 그곳에서 며칠 지낸 뒤 신랑의 집으로 가서 생활하였다.

위 가상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례를 치른 장소와 이후 생활의 중심이 된 집이 서로 다르다.
②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렀으므로 이후에도 그 집에서 오래 살았다.
③ 신랑의 집으로 옮겨 갔으므로 혼례 역시 신랑의 집에서 치렀다.
④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른 사실만으로 조선 전기 기록임을 확정할 수 있다.
⑤ 이 기록은 남녀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확인 03 ‘우대’의 뜻 판단하기

학생들이 “조선 후기에는 큰아들이 제사를 주로 맡고 재산 상속에서도 우대받았다”는 문장을 읽었다. 이 문장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① 가: 제사를 지내는 풍습 자체가 조선 후기에 처음 생겼다는 뜻이야.
② 나: 양자를 들이는 일이 사라지고 친아들만 대를 이었다는 뜻이야.
③ 다: 큰아들을 제외한 자녀에게는 언제나 재산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야.
④ 라: 제사를 맡는 역할과 가계 계승은 관련이 없었다는 뜻이야.
⑤ 마: 집안의 대와 제사를 잇는 큰아들의 지위를 더 중시했다는 뜻이야.

확인 04 양자와 족보의 공통 배경

- 한 집안은 딸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어, 같은 부계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맞았다.
- 다른 집안은 족보에서 아들을 먼저 적고 외손의 기록을 줄였다.

두 사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① 농민들의 공동 노동을 위한 조직 확대
② 아버지 쪽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계 계승 강조
③ 서얼의 관직 진출 차별에 대한 문학적 비판
④ 딸 쪽 후손을 중심으로 한 문중 형성
⑤ 지방 행정 실무를 맡은 향리의 권한 강화

확인 05 여성의 생활 규범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생활 규범을 설명한 것은?

- 양반 가옥에서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을 구분하였다.
-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고 열녀를 표창하였다.

① 서민의 문예 활동 참여가 확대되었다.
② 남녀 자녀가 재산을 고르게 상속하였다.
③ 집안의 제사를 남녀 형제가 돌아가며 맡았다.
④ 남녀의 역할 구분과 여성에게 요구한 정절이 중시되었다.
⑤ 문중과 관계없이 마을의 농민들이 일손을 모았다.

확인 06 향촌의 세력 관계

다음 빈칸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조선 후기 향촌에서는 기존 양반과 새로 성장한 (가)이/가 주도권을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고을의 행정 권한을 가진 (나)의 영향력은 강해졌다.

선택	(가)	(나)
①	부농	기존 양반
②	부농	수령·향리
③	수령	부농
④	향리	기존 양반
⑤	수령·향리	부농

확인 07 양반의 대응 목적

>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이루고, 집안의 족보를 간행하며 사우를 세웠다.

이 활동을 한 양반들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내기에 필요한 일손을 공동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② 한글 소설을 빌려주는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③ 소리꾼과 고수의 공연을 조직하기 위해서
④ 집안의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한 문중으로 묶기 위해서
⑤ 친족의 결속과 가문의 위상을 통해 향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 08 조직의 성격 비교하기

조직 (가)	조직 (나)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부계 친족들이 결속한다.	모내기처럼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사일을 마을 농민들이 함께한다.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문중, (나)는 두레이며 결속의 중심이 서로 다르다.
② (가)는 두레, (나)는 문중이며 모두 부계 친족만 참여한다.
③ (가)는 서당, (나)는 세책방이며 모두 글을 가르치는 조직이다.
④ (가)는 수령, (나)는 향리이며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다.
⑤ (가)는 문중, (나)는 두레이며 두 조직 모두 토지 공동 소유가 목적이다.

확인 09 공동 노동의 결과

모내기법이 퍼지면서 한 마을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졌다. 농민들이 두레를 통해 함께 모내기한 까닭과 그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개별 농가의 논이 없어지고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가 되었다.
② 정약용의 토지 개혁안이 이 마을에서 시행되었다는 증거이다.
③ 공동 조상이 같은 집안의 족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④ 한꺼번에 필요한 일손을 모아 함께 일하면서 농민들의 유대감과 자율성도 높아졌다.
⑤ 마을에 사는 양반만 참여하여 향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활동이다.

확인 10 한 시대의 서로 다른 변화

다음 두 사실을 함께 이해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큰아들과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 질서가 강해졌다.
> • 서민이 문학과 공연을 즐기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 넓어졌다.

① 두 사실 중 하나는 반드시 조선 전기의 모습이어야 한다.
② 문화 참여가 넓어졌으므로 상속과 혼인에서도 남녀의 권리가 같아졌다.
③ 가족의 규범과 문화 참여는 다른 영역이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④ 가족 질서가 강화되었으므로 서민의 문화 활동은 점차 사라졌다.
⑤ 두 사실은 조선 후기의 모든 사람에게 신분 차별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확인 11 서민 문화 발달의 배경

조선 후기 서민 문화 발달의 배경을 발표할 때, 고쳐야 할 문장은?

① “이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한글 덕분에 서민들이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② “경제력을 키운 서민들이 늘면서 문화에 참여할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③ “서당 교육이 보급되어 글을 배울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④ “한글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⑤ “서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확인 12 이야기를 접하는 길

> 가: 책을 사기에는 부담이 되어 돈을 내고 며칠 동안 빌려 읽었어.
> 나: 나는 여러 사람과 모여 누군가 읽어 주는 이야기를 들었어.

대화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서당에서 책을 무료로 나누어 받은 것이다.
② 가가 읽은 책은 한글 소설이므로 작가도 반드시 서민이다.
③ 나는 글을 직접 읽지 않았으므로 문학을 즐긴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책을 빌려 읽는 사람과 낭독을 듣는 청중 모두 이야기의 확산에 참여하였다.
⑤ 세책방은 나와 같은 청중에게 북 장단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확인 13 소설의 비판 대상

작품과 그 안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택	『홍길동전』	『춘향전』
①	출생 신분에 따른 서얼 차별	큰아들을 우대한 재산 상속
②	출생 신분에 따른 서얼 차별	신분의 벽과 관리의 부당한 강요
③	관리의 부당한 강요	출생 신분에 따른 서얼 차별
④	이상 사회의 추구	부계 중심으로 바뀐 족보 기록
⑤	큰아들의 제사 주관	신분을 넘어선 사랑

확인 14 사설시조의 특징

다음 특징에 해당하는 문학 갈래는?

> • 평시조보다 말을 길게 늘이고 형식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 • 일상의 고민과 사랑 등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다.

① 평시조
② 한글 소설
③ 판소리
④ 탈춤
⑤ 사설시조

확인 15 등장인물 수와 공연자 수

> 한 소리꾼이 부채를 들고 여러 인물의 말을 번갈아 표현하였다. 옆에 앉은 사람은 북을 치며 장단을 맞췄다.

위 공연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여러 인물을 표현했으므로 인물 수만큼 소리꾼이 무대에 서 있었다.
② 북을 치는 사람이 긴 이야기를 이끄는 소리꾼이고, 부채를 든 사람이 고수이다.
③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판소리이며, 이야기 속 인물 수와 소리꾼 수는 다르다.
④ 부채를 들었으므로 탈을 쓴 인물들이 춤과 대사로 공연하는 탈춤이다.
⑤ 평시조의 문장을 길게 늘였으므로 사설시조를 읽는 장면이다.

확인 16 공연의 웃음 읽기

> 탈을 쓴 양반 역할이 가문의 권위를 내세웠다. 하인 역할은 그가 말과 달리 행동한 일을 들추어내어 관객을 웃게 하였다.

이 장면에서 읽어 낼 수 있는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반 가문의 족보가 정확한지를 학문적으로 검증하였다.
② 북 장단에 맞추어 한 소리꾼이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풀었다.
③ 웃음을 주는 장면은 사회를 비판하는 표현과 함께 나타날 수 없다.
④ 인물의 말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어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⑤ 모든 양반이 경제력을 잃어 신분제가 이미 폐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확인 17 실제 그림에서 작가 찾기

다음 그림을 그린 화가의 다른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료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누리 제1유형. 작품명·작가는 해설에서 확인합니다.

① 신윤복의 「단오풍정」

② 김홍도의 「서당」

③ 정선의 「인왕제색도」

④ 정선의 「금강전도」

⑤ 작자 미상의 까치호랑이

확인 18 그림의 쓰임과 의미

다음 그림을 감상하며 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누리 제1유형.

① 실제 어느 산의 지형을 그대로 옮긴 진경 산수화이다.

② 사람들의 농사일을 기록한 김홍도의 대표 풍속화이다.

③ 작가의 이름이 없으므로 그림에 담긴 상징도 살펴볼 수 없다.

④ 민화는 서민 집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왕실의 장식과는 관련이 없다.

⑤ 동물의 상징과 익살스러운 표현에서 복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살필 수 있다.

확인 19 소재와 기능으로 그림 구별하기

(가)	(나)	(다)
실제 우리 산천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림	사람들이 장터나 일터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림	효·충·신 등의 글자에 그림을 더하여 꾸밈

(가)~(다)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택	(가)	(나)	(다)
①	풍속화	진경 산수화	민화의 문자도
②	진경 산수화	민화의 문자도	풍속화
③	진경 산수화	풍속화	민화의 문자도
④	민화의 문자도	풍속화	진경 산수화
⑤	풍속화	민화의 문자도	진경 산수화

확인 20 풍속화로 알 수 있는 것

김홍도의 「씨름」에는 서로 겨루는 두 사람과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① 씨름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구경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모습도 그려졌다.
② 그림 속 모든 인물은 정확히 같은 신분이었다.
③ 당시 농민들은 매일 같은 시각에 씨름을 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농민의 생계 문제와 신분 차별이 해결되었다.
⑤ 이 그림이 그려진 뒤에야 씨름이라는 놀이가 처음 생겼다.

확인 21 단서에서 용어 떠올리기

각 설명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1) 마을 농민들이 일손을 모아 농사일을 함께한 공동체 조직: _____

(2)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던 곳: _____

(3) 평시조보다 말을 길게 늘이며 감정과 생활을 자유롭게 표현한 시조: _____

확인 22 역할·작품 연결하기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판소리에서 북을 치며 소리꾼의 공연을 받쳐 주는 사람은 _____이다.

(2) 부녀자의 생활과 명절의 풍경을 담은 「단오풍정」을 그린 화가는 _____이다.

(3) 큰아들을 우대하고 아버지 쪽 혈통으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_____ 중심의 가족 질서와 관련된다.

확인 23 가족 풍습의 변화 설명하기

카드 (가): 조선 전기·중기	카드 (나): 조선 후기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이 비교적 고르게 나누고, 남녀 형제가 제사를 돌아가며 맡았다.	큰아들이 제사를 주로 맡고 재산 상속에서도 다른 자녀보다 우대받았다.

① (가)에서 (나)로 바뀐 배경, ② 재산 상속과 제사에서 달라진 점을 각각 한 가지씩 포함하여 두 문장 이내로 쓰시오.

확인 24 웃음과 비판을 연결하기

> 탈을 쓴 인물들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였다. 높은 신분을 자랑하던 인물이 자신의 말과 어긋나는 행동을 들키자 관객들이 웃었다.

① 공연의 이름, ② 웃음을 통해 비판한 대상과 방식을 포함하여 두 문장 이내로 쓰시오.

정답과 해설

정답 한눈에 보기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③	06	②	11	①	16	④
02	①	07	⑤	12	④	17	②
03	⑤	08	①	13	②	18	⑤
04	②	09	④	14	⑤	19	③
05	④	10	③	15	③	20	①

문항	정답·핵심 요소
21	(1) 두레 (2) 세책방 (3) 사설시조
22	(1) 고수 (2) 신윤복 (3) 부계
23	성리학적 규범의 정착·부계 의식 강화 / 큰아들 우대 상속 / 큰아들의 제사 주관
24	탈춤 / 양반의 위선을 우스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어 비판

확인 01 정답 ③

큰아들의 제사 주관·우대 상속·부계 친족의 양자는 성리학적 생활 규범과 부계 의식의 강화로 묶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은 두레 활성화의 배경입니다. ②는 문학을 즐길 기반의 확대와 관련됩니다. ④는 상업의 변화, ⑤는 향촌의 주도권 변화입니다. 모두 조선 후기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지만, 가족 풍습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③이 적절합니다.

확인 02 정답 ①

혼례 장소는 신부의 집이고, 이후 생활의 중심은 신랑의 집입니다. 혼례를 어디서 했는지와 혼인 뒤 어디서 살았는지를 나누어 읽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②는 며칠 뒤 옮겼다는 내용을 놓쳤습니다. ③은 거주지를 혼례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④는 반친영제와 같은 후기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⑤의 재산 분배 방식은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03 정답 ⑤

큰아들을 집안의 계승자로 중시하는 인식이 제사와 상속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대'는 더 중시한다는 뜻이며 재산의 독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제사는 전기에도 있었습니다. ② 아들이 없을 때 부계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③ 큰아들 우대를 언제나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확대했습니다. ④ 제사 책임과 가계 계승은 연결되었습니다.

확인 04 정답 ②

두 사례는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대를 잇고 집안의 관계를 기록하려는 경향을 보여 줍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과 아들을 통해 대를 이으려 한다는 인식은 함께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은 두레의 성격입니다. ③은 『홍길동전』과 연결할 내용입니다. ④는 부계와 딸 쪽 후손을 뒤바꾸었습니다. ⑤는 향촌의 행정 권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확인 05 정답 ④

사랑채·안채 구분은 남녀의 역할과 공간 구분, 열녀 표창은 여성에게 정절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은 문화 참여의 확대입니다. ②·③은 전기·중기에 많았던 상속·제사 풍습에 가깝습니다. ⑤는 농사 협력을 중심으로 한 두레와 관련됩니다. 제시된 두 자료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확인 06 정답 ②

기존 양반과 주도권을 다툰 새 세력은 부농이고, 이 과정에서 권한이 강해진 지방 행정 담당자는 수령·향리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기존 양반의 향촌 지배력은 약해졌습니다. ③은 주도권을 다툰 부농과 행정 담당자인 수령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④는 새로 성장한 경제적 세력을 향리로 잘못 연결하고, 권한이 강해진 쪽도 기존 양반으로 바꾸었습니다. ⑤는 경쟁 세력인 부농과 권한이 강화된 수령·향리를 뒤바꾸었습니다.

확인 07 정답 ⑤

동족 마을·족보·사우는 친족의 결속과 가문의 위상을 높여 향촌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활동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은 두레의 농사 협력입니다. ②는 세책방과 관련됩니다. ③은 판소리 공연입니다. ④ 문중은 공동 조상과 부계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하므로 모든 주민을 한 집단으로 묶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확인 08 정답 ①

(가)는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문중, (나)는 농사 협력을 위한 두레입니다. 함께 모이는 조직이라도 결속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② 두 조직의 이름을 바꾸었고, 두레를 부계 친족만의 조직으로 제한했습니다. ③ 서당은 교육 공간, 세책방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며 제시된 조직과 다릅니다. ④ 수령·향리는 사람들의 직책·역할이며 향리는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다릅니다. ⑤ 문중이나 두레의 설명에서 토지 공동 소유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 09 정답 ④

모내기법이 퍼지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져 두레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일하는 과정은 유대감과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공동 노동이 토지 국유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② 두레를 정약용의 토지 공동 소유·경작 구상의 시행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③은 문중·족보의 일입니다. ⑤ 두레를 양반만의 조직으로 보거나 그 목적을 향리의 권한 확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 10 정답 ③

서민의 문화 참여가 확대되는 한편, 가족에서는 부계 중심 규범이 강화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두 변화 모두 조선 후기에 나타났습니다. ② 문화 참여 확대가 가족의 권리 평등을 뜻하지 않습니다. ④ 가족 규범의 강화가 서민 문화의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⑤ 신분 질서의 동요와 신분 차별의 완전한 소멸은 다릅니다.

확인 11 정답 ①

한글은 조선 전기에 창제되었습니다. 후기의 서민 문화와 연결할 말은 한글의 '창제'가 아니라 **사용 확대**입니다.

나머지 선지가 맞는 이유 ② 경제력의 성장은 문화 참여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③ 서당 보급은 글을 배울 기회를 늘렸습니다. ④ 한글 사용 확대는 이야기의 확산과 연결됩니다. ⑤ 서민의 생활·감정 표현은 서민 의식 성장의 모습입니다.

확인 12 정답 ④

가는 세책방과 같은 곳에서 책을 빌려 읽는 독자, 나는 전기수처럼 소설을 읽어 주는 사람의 낭독을 듣는 청중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야기를 즐기는 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은 유료 대여를 서당의 무료 제공으로 바꾸었습니다. ② 작품의 문자만으로 작가의 신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듣는 방식으로도 문학을 즐길 수 있습니다. ⑤ 세책방은 북 장단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확인 13 정답 ②

『홍길동전』은 서얼 차별과 이상 사회 추구, 『춘향전』은 신분의 벽과 관리의 부당한 강요를 핵심 단서로 연결합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춘향전』의 중심 갈등을 큰아들 우대 상속으로 잘못 연결했습니다. ③ 두 작품의 대표적인 비판 대상을 뒤바꾸었습니다. ④ 『홍길동전』의 이상 사회 추구는 맞지만, 부계 중심의 족보 기록은 『춘향전』의 핵심 갈등이 아닙니다. ⑤ 『춘향전』의 신분을 넘어선 사랑은 맞지만, 큰아들의 제사 주관은 『홍길동전』의 핵심 갈등이 아닙니다.

확인 14 정답 ⑤

시조의 형식을 길고 자유롭게 활용하며 생활 감정을 표현한다는 단서는 사설시조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평시조는 비교적 짧고 일정한 형식을 갖춥니다. ② 한글 소설은 인물과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입니다. ③ 판소리는 북 장단에 맞춘 소리꾼의 노래와 말, ④ 탈춤은 탈을 쓴 인물들의 춤과 대사로 구별합니다.

확인 15 정답 ③

소리꾼이 여러 인물을 표현하고 고수가 북 장단으로 받쳐 주는 판소리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공연자 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한 소리꾼이 여러 역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② 소리꾼과 고수의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④ 부채만으로 탈춤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자료는 소리꾼·고수의 공연입니다. ⑤ 시조의 형식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확인 16 정답 ④

탈춤에서 인물의 우스운 말과 행동은 양반의 허세와 위선을 드러내는 풍자입니다. 해학과 비판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족보를 조사한 장면이 아닙니다. ②는 판소리의 기본 형식입니다. ③은 웃음과 비판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⑤ 공연의 풍자만으로 모든 양반의 경제 상태나 신분제의 폐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 17 정답 ②

자료는 김홍도의 「벼타작」입니다. 같은 화가의 작품으로 「서당」과 「씨름」을 연결합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단오풍정」은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③·④는 정선의 진경 산수화입니다. ⑤는 작자 미상의 민화이며 김홍도의 작품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화가의 이름과 화면 속 행동 장면을 함께 기억합니다.

확인 18 정답 ⑤

자료는 작자 미상의 까치호랑이입니다. 재앙을 막고 좋은 소식을 바라는 상징과 생활 공간을 꾸미는 쓰임을 민화의 특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 실제 산천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 아닙니다. ② 농사일을 그린 김홍도의 작품이 아닙니다. ③ 작가를 모르더라도 소재와 쓰임, 상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④ 민화는 왕실에서 민간까지 이용되었습니다.

확인 19 정답 ③

실제 산천은 진경 산수화, 사람들의 생활은 풍속화, 효·충·신 등의 글자를 꾸민 그림은 민화의 문자도와 연결합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①은 (가)·(나), ②는 (나)·(다), ④는 (가)·(다)를 바꾸었습니다. ⑤는 세 칸 모두 자료의 핵심 단서와 맞지 않습니다. 소재 하나가 조금 보이는지보다 무엇을 중심으로 그렸는지 살핍니다.

확인 20 정답 ①

씨름을 하는 인물과 이를 구경하는 인물의 행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뿐 아니라 놀이와 여가도 풍속화의 소재였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 ② 모든 인물의 신분을 같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매일의 일정은 그림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④ 그림 한 점으로 시대 전체의 생계·차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그림이 그려진 때가 놀이가 처음 생긴 때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확인 21 정답 **(1) 두레 (2) 세책방 (3) 사설시조**

구별할 기준 두레는 농사 협력, 세책방은 유료 책 대여, 사설시조는 시조의 형식과 생활 감정을 단서로 찾습니다. 각각 하나씩 맞히면 됩니다.

확인 22 정답 **(1) 고수 (2) 신윤복 (3) 부계**

구별할 기준 노래와 말로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은 소리꾼이고 북을 치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단오풍정」은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쪽 혈통이라는 말은 부계의 뜻입니다.

확인 23 모범 답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하면서 부계와 큰아들을 중시하는 가족 질서가 강해졌다. 그에 따라 재산 상속에서는 아들과 딸의 비교적 고른 분배에서 큰아들 우대로, 제사에서는 남녀 형제의 분담에서 큰아들 중심의 주관으로 바뀌었다.

채점 기준 ① 성리학적 생활 규범의 정착 또는 부계 의식 강화라는 배경, ② 큰아들을 우대하는 상속, ③ 큰아들이 제사를 주로 맡는 변화, 세 요소를 모두 쓰면 정답입니다. 표현이 달라도 뜻이 같으면 인정합니다. '큰아들이 재산을 언제나 전부 독차지했다'는 서술은 우대의 뜻과 다릅니다.

확인 24 모범 답

탈춤이다. 높은 신분을 내세운 인물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채점 기준 ① 탈춤, ② 양반의 위선·허세를 웃음을 통해 드러내어 비판했다는 내용을 모두 쓰면 정답입니다. '양반을 비판했다'만 쓰면 비판한 모습과 표현 방식이 부족하고, '웃기기 위한 공연'만 쓰면 사회 비판의 의미가 빠집니다.